

[보도자료] 바이브컴퍼니,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바이브컴퍼니(이하 바이브) 김성언 대표가 친환경 캠페인인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자는 취지로 지난 2월부터 실시된 릴레이 캠페인이다.

바이브 생활변화관측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의 사용이 급증했지만 그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죄책감도 증가하면서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라이프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썬트렌드로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온라인 상에서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언급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한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브는 사무실 내 전면 페이퍼리스 업무 도입으로, 회의 진행이나 업무 보고 시 인쇄물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회의실마다 대형 모니터를 비치했으며, 임원 보고 등 주요 보고 시에도 별도의 인쇄물을 사용하지 않는 보고 문화가 정착돼 있다. 또, 전자결재 시스템을 운영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캠페인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이면지 사용하기 ▲에코백 사용 등을 직원들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

김성언 대표는 “환경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여 가치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향후 환경 캠페인 등을 기획해 전사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브 김성언 대표는 와이드플래닛 구교식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1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AI 기반 핀테크 전문기업 퀴팅의 한덕희 대표를 지목했다.